



교회의 역사 – 11.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2026. 5. 10

1.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고,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2. 예루살렘 교회는 [교사]를 세우기 위해 사도를 선출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바오]의 진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이방 선교는 특정 몇 사람이 아닌,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툼]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파는 지속적인 [오그]가
필요합니다.

4.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오스ㅎ]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스르]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5. 신앙의 수호자로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성경적인 답변을 항상

[저버]해야 합니다.

6. 성경을 **[흥 L L]**의 말씀으로 받고 개인의 **[그 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7. 교회의 통일은 [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한 자세로 부단히 말씀을 [오 그]해야 합니다.

8.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 그]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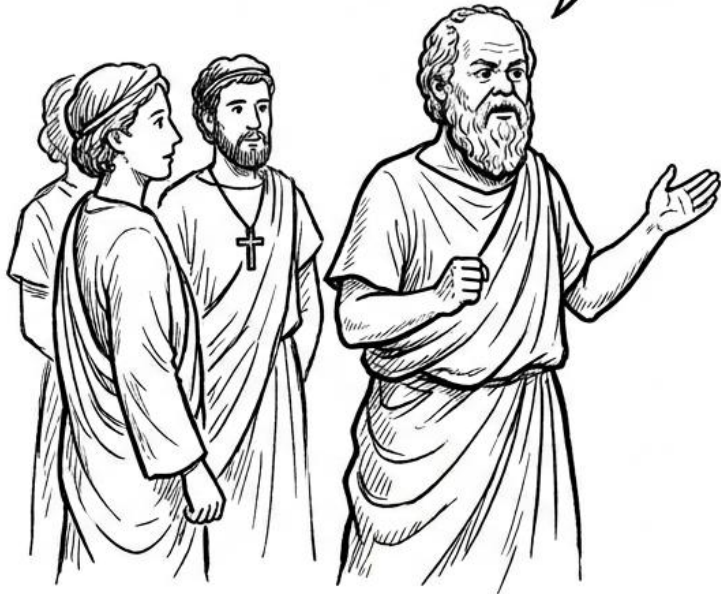
9. 교회는 세상에 [人 등 人] 았았기에 세상은 교회를 [口 口]합니다.

10.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개인의 (ㄱ ㄱ)에 힘쓰고 서로 (人)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 만약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렸겠는가?
- 왜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을까?
- 그렇다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단 말인가?
- 그렇지도 않다면 그가 아시기는 하지만 직접 내려오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처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

“전체 우주 위에
지존의 존재가 있다.”



철학자

“그 지존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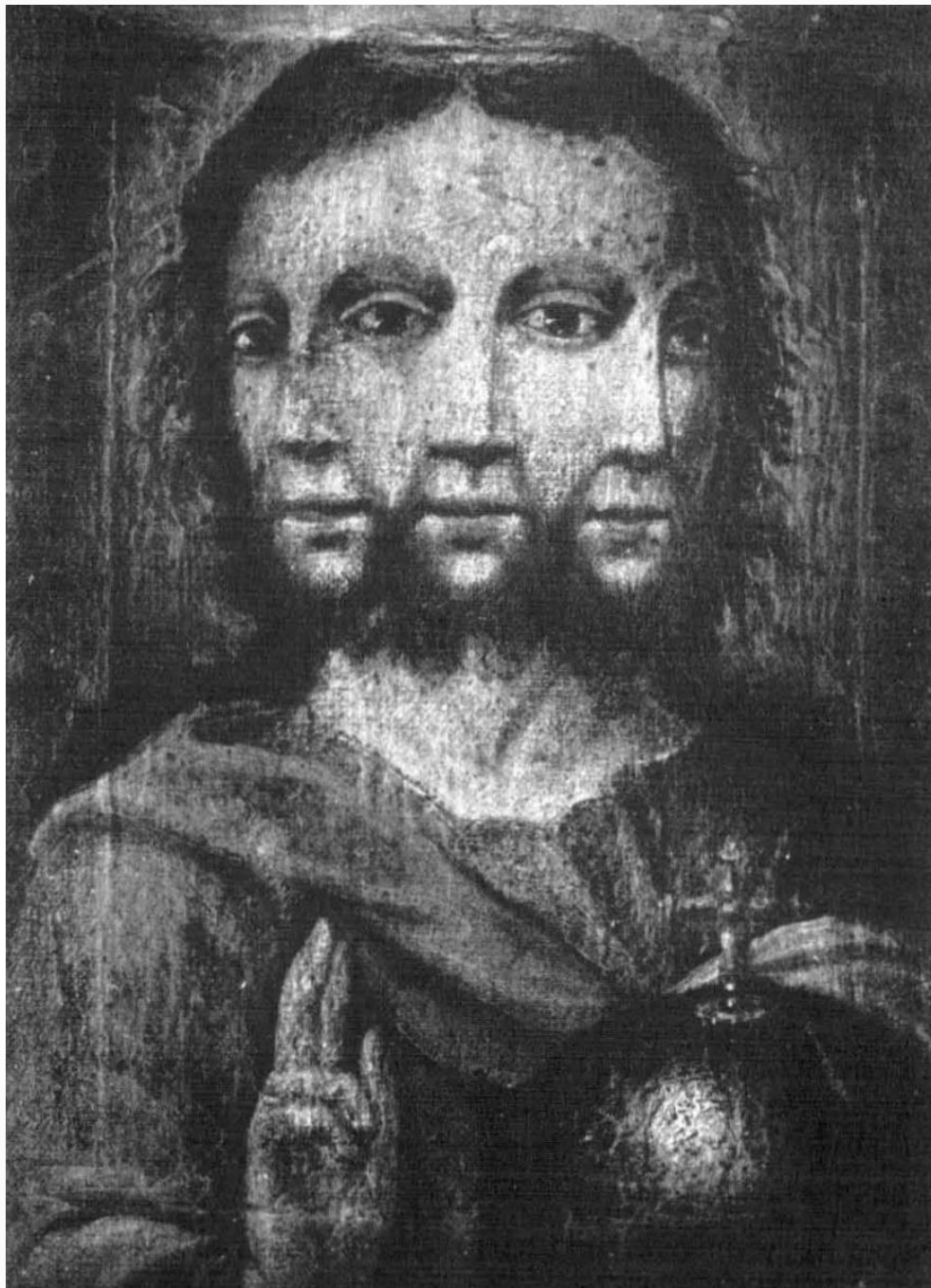
기독교인

권위 있는 철학자도
말한 것이니
설득력이 있네



지식층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히 1:5)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콘스탄티노플 어디를 가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장사꾼을 만나도 그에게 붙잡혀
토론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을 정도다”**

“만일 당신이 거스름돈을 요구하면, 어떤 사람이 피조물과 창조자에 대하여 당신에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빵 값을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는 보다 크신 분이시며, 성자는 그 아래 분이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목욕 준비가 되었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성자께서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 되셨다’고 할 것이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